

2공장 공정률 30% 10월 시험가동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재편 순조...내년부터 스포티지R·쏘울 생산

카렌스·쏘울 후속모델 개발 내년까지 출시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노사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주공장엔 또 카렌스와 쏘울의 후속모델을 개발, 올해 말과 내년 하반기 연달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 3월 20일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와 관련, 신·증축 공사 일정에 합의한 이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인

광주2공장 전착공장 및 의장공장 신·증축 공사는 건축공정 약 30%를 보이며 생산공장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건축공사가 끝나면 9월 한 달 간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10월부터는 시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 시설공사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신·증축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공장은 스포티지R과 쏘울을 병행해 시간당 생산능력을 42대에서 66대로 올려 연간 31만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1공장은 카렌스 후속 신차(프로젝

트명 RP)를 연간 20만대 양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일까지 생산라인을 멈추고 설비를 조정 중이다. 3세대 카렌스인 신차 RP는 오는 11월 열리는 LA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본격 양산은 12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3공장은 시간당 생산능력을 21대에서 23대로 늘려, 연간 11만대를 생산한다. 기아차는 1트럭의 산업 수요가 연간 15만 대 수준이고, 아시아·중동·중남미 수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62만대 증산 프

젝트와 함께 쏘울·스포티지R을 이어갈 신차 출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광주공장에서 생산할 신차 계획은 카렌스와 쏘울 후속 모델이다.

카렌스 후속모델은 RP로 오는 12월 초 양산에 들어가고, 쏘울 후속모델은 프로젝트명 PS로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차 PS는 '디자인 기아'를 이끌었던 쏘울의 2세대 모델로 최근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트렉스터'가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반월만소학교에서 윤영두(오른쪽) 사장과 린루슈에(林樂學)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와 '1지점 1교' 자매결연을 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중 21개 도시 초·중학교와 결연, 베트남 교민회 지원... 금호아시아나 따뜻한 해외 경영

중 웨이하이시, 박삼구 회장에 명예시민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따뜻한 해외 경영이 경제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21개 취항 도시에서 초·중학교와 '1지점 1교'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 공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반월만소학교에서 윤영두 사장과 린루슈에(林樂學)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지점 1교' 자매결연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50대, 도서 1000권, 피아노 1대, 빔 프로젝트 9대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지린성 투먼시 조선족자치구의 제5학교, 5월 지우타이시 조선족학교에 이어 세 번째 자매 결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취항 도시 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이날 웨이하이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여기에 베트남에 진출한 금호타이어도 진정성 있는 기업 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현지 법인 직원인 쯔영씨를 즉시 국내로 후송했으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의료비와 체제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베트남 교민회와 MOU를 체결하고 문화 페스티벌, 한국어 교실 등 베트남 교민의 단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993년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호치민에 취항했고, 10년 뒤인 2003년 수도인 하노이에 취항하며 베트남과의 인적·물적 교류에 앞장섰다. 이후 금호타이어, 금호건설, 그리고 금호고교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총 투자금액만 5억달러대에 이르고 있을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6년 베트남과 MOU를 맺은 후, 빈즈영성에 생산 공장을 지어 고무 가공 공장과 함께 운영해오고 있다. 빈즈영성의 타이어 생산 공장은 베트남 최초의 래디얼 타이어 공장으로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타이어의 약 95%가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인 광주2공장 전착공장 및 의장공장 신·증축 공사가 건축공정 50%를 보이며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권 치과 관련 기업 알파덴트·아이씨엠

본사 광주 이전 테크노파크에 등지

광주테크노파크는 4일 수도권 치과 관련 중견기업인 (주)알파덴트와 (주)아이씨엠 2곳이 본사를 광주로 이전, 광주테크노파크에 새 동지를 트다고 밝혔다.

(주)알파덴트(대표이사 임재수)는 생체용 세라믹 등 치과재료 전문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300여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생체

용 세라믹, WC 등 다수의 치과용 제품을 국산화해 세계 3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조성 중인 진곡산단 타이타늄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1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의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 생산기업 (주)아이씨엠

(대표이사 박주영)는 70% 이상을 수출전략품목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진곡산단에 500평의 부지를 확보해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고부가가치 치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광주가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H 청년인턴 500명 채용

LH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동참하고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청년인턴사원을 총 500명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규모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일반인턴 400명과 고졸인턴 100명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공생발전' 실천을 위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채용인원의 50% 이상은 지역인재, 10% 이상은 장애인, 8% 이상은 국가유공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GS칼텍스, 가스·전력·자원개발 GS에너지에 양도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스·전력, 자원개발, 녹색성장 산업 등을 에너지전문사업 지주회사인 GS에너지(대표 나완배 부회장)에 양도했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는 GS과외 지분 50%를 비롯해 해양도시가스·서라벌 도시가스 등 가스·전력 사업, 유전광구 등 자원개발 사업, GS플리텍·GS나노텍·삼

일플리머 등 신에너지·신소재 사업이 포함됐다. 양도금액은 총 1조1062억이다. GS에너지는 기존 GS칼텍스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지분투자회사 중 13개의 회사와 4개의 유전개발 광구, 충남 보령 LNG터미널 부지 등을 인수하게 된다. GS칼텍스는 기존 주력 에너지사업인 정유와 석유화학, 운할기유·유탄유 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783.13 (-51.36)
코스닥지수	450.84 (-21.29)
금리 (국고채 3년)	3.26% (-0.04)
원·달러 환율	1,182.00원 (+4.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연감 2012년판 출간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연감 '연합연감 2012년판'이 출간됐습니다. 연합연감 2012년판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담은 것으로, 14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2011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주요 사건과 사고를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안철수 돌풍, 정치권 강타' '저축은행 사태... 7만 예금자 울려' 'K팝 열풍 아시아 넘어 지구촌으로 확산'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이슈 15개를 초점으로 선정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분야별 뉴스 및 현황, 일지, 연표 등과 함께 주요 연설 및 발표문, 화제의 인물, 주요 사건·사고별 일지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 등의 자료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2011년 12월 17일에 급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후계자 '김정은 체제 출범'을 자세히 다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당·정·군 조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권력 기구도와 북한 주요기관 및 단체장 명단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2011 북한 10대뉴스, 일지, 약사, 연표, 주요 인물 동향 등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히 '2012년판 연합연감'은 종전에 따로 발행했던 북한연감을 '북한편'으로 흡수해 한 권으로 합본하고 책 부피도 줄여 휴대와 읽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경했으며, 내용도 독자의 지루함을 덜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과 통계, 그래픽, 도표 등을 다채롭게 곁들여 제작했습니다.

국내외를 총 망라한 국내 최고의 종합지표집 한 해를 되돌아볼 시간, 지금 바로 2012년판 연합연감

4*6배판 양장본, 총 1천176쪽
가격: 12만원

□ 구입문의 서울 02-398-3590~3, 경기 031-238-2222, 강원경기북부 031-569-7788, 부산 051-441-7400, 경남 055-281-0010, 대구 053-355-3800, 인천 032-427-1236, 대전(충남) 042-521-9705, 광주 062-264-0064, 청주 043-225-5005, 전주 063-232-7652